

# 9월부터 휴대폰 요금 할인을 25%로 상향

## 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

노년·저소득층 월 1만1천원 추가 감면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

공공기관 와이파이 구축·무료 개방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버스과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정에서 제외하고 국회·기업·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정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간편 대상자 : 총 584만명 (중복수치 제외)	
대상	연령	개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5,000원 기본료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2,500원)	26,000원 기본료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추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11,000원 기본료 감면 추가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수급자	-	11,000원 기본료 감면

대상	연령	개선
일반이용자	20%	25%

기본 제공 서비스	월 요금(부가세 포함)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	20,000원

5%포인트 올린다. 선택적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동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을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월 3파인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공공 와이파이에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6만원대 LTE 요금제, 월 3천원 더 할인

## 소비자 혜택 얼마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9월부터 요금 할인이 20%에서 25%로 오르면 할인 전 명목 요금 기준으로는 5% 인하 효과가 있고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 기준으로 6.25% 인하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이 6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보다 적은 4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이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저가 단말은 요금할인 금액보다 지원금이 많아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할인이 5%포

인트 오르면서 저가 단말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나온 LG전자의 중저가폰 X500(출고가 31만9000원)의 경우 요금할인율이 20%인 현재는 저가 요금제에서만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할인이 25%로 오르면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다.

SKT의 '밴드 데이터 세이버' 요금제(월 3만2890원)를 적용해 보면 현재 20% 요금할인액은 15만8400원으로 단말기 지원금(19만5500원·15% 추가 지원금 포함)보다 적다.

그러나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할인이 19만7340원으로 늘면서 지원금보다 더 유리하게 된다.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높을수록 요금할인액과 지원금의 차액 폭이 커지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낫다.

다만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7~12개월은 50~60%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청와대 앞길 50년만에 열린다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  
청와대 배경 사진촬영도 허용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야간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차장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청와대 주변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은 물론 검문소에 설치됐던 차단막이 사라진다. 대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 안내초소가 설치된다. 아울러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박 대변인은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라도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왕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됐었는데 풀린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종준 전 문화체육관광,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바탕 축제' 행사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광객들이 22일 청와대 앞 초소 경비병을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다. /\*연합뉴스

# 월급쟁이 평균 329만원...남녀차 1.7배

## 통계청, 소득분포 첫 공개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세전 평균 월급이 32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배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평균 월급은 은퇴한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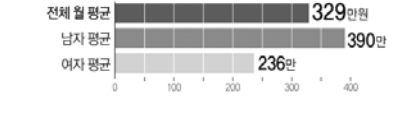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이었다. 이들을 한 줄로 늘어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일자리행정통계를 토대로 한 시험적인 성격으로, 조사 대상은 전체 일자리의 약 60% 수준인 1500만개로 한정됐다. 임금근로자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약 900만개는 빠져 있어 실제 평균·중위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16.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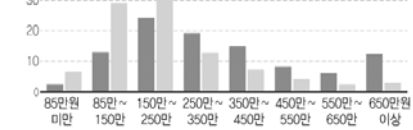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남성이 1.65배 더 받는 셈이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었다. 1.68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은 고소득층 비율이 더 크고, 반대로 여성은 저소득층 비율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달에 650만원 이상 받는 남성은 전체의 12.3%였지만, 여성은 3.0%에 불과했다. 반대로 월급 85만원 미만은 남성은 2.4%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6.6%에 달했다.

## 우리나라 '월급쟁이'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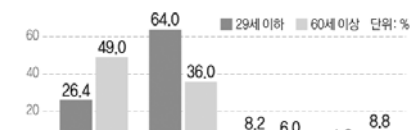
2015년 기준(보통, 국민연금, 지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 성별 소득구간 분포



## 청년·노년층 소득구간 분포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신당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번 대770㎡ 매23억원
5. 광안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 태성공인중개사

**상 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직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참고용지 도로전 990㎡ 5억원
- 광안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안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안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령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